한국현대사의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4주차. 장면(1) 2강. 경제정책 구상





- 1.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 구상은?
- 2. 그 정책의 이념적 기반은?





- 1.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과 이승만 정권의 경제정책의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다.
- 2.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, 그 경제정책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2강 경제정책 구상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경제정책의 이념적 기반은 무엇인가?
- 나는 지금까지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였는가?

0] 장면 정권의 집권 초기

- ☑ 장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민주당 신·구파의 대립 격렬
- ✓ 분당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, 신파 중심의 초기 내각 구성은 구파의 입각과 일정한 역할 분담으로 봉합
- ☑ 경제관료진 구성에서는 초기부터 신파의 주도권이 관철되었고, 이 그룹의 핵심 경제 이데올로그는 주요한과 김영선



0] 장면 정권의 집권 초기

☑ 자본주의 정당화 이념, 자유주의(Liberalism)

고전적 자유주의(Classical Liberalism)/신자유주의(Neo-liberalism)

- 최소개입주의(minimalism)
- 국가 역할 = 권력 개입의 최소화 원칙
- 최소화 원칙의 이념적 체계화 = 자유주의
- 개입의 최소화를 통한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
- 자유 = 외부의 강제 · 속박에서 자율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선택권
- 국가권력의 개입 억제
- 제도적 장치 = 법치주의

신자유주의(New Liberalism)/사회적 자유주의(Social Liberalism)

- 시장에 대한 국가의 능동적인 개입
- 시장관 차이 (Smith의 '보이지 않는 손' vs Hobhouse의 '보이는 깨끗한 손')
- 시장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 체제 부정하지 않음



- ✓ 기업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자본주의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
 - ➡ 국민과 기업은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
 - →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'선량한 환경'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만 '지도'를 해야 한다는 것임
- ☑ 그 외 일체의 관권 개입은 제한되어야만 한다고 주장



- ✓ 그는 방임주의에 가까운 자유기업주의의 입장을 가진 자유주의 경제론자
- ✓ 주요한이 이러한 입론을 갖게 된 것은,
 - ➡ 일제시기 이래 수양동우회가 견지한 근대국가 건설론의 영향
 - → 이승만 정권의 관권 경제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연유



- ☑ 일제시기 수양동우회는 근대국가 건설의 기초를 근대적 마인드를 가진 시민세력의 육성에서 찾음
- ☑ 시민 세력은,
 - ➡ 인격 훈련을 통해 지식을 갖추고 자아를 혁신하며
 - ➡ 자조 정신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
 - ➡ 시민세력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육성될 수 있음
- ✓ 수양동우회 세력은 육성된 시민세력을 바탕으로;
 - ➡ 단결 훈련을 통해 호조(互助)정신을 불러일으키고,
 - → 여론을 형성해 민족적 합동을 이룬다면 근대 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



- ☑ 근대적인 시민세력의 육성을 위해 시민세력의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작업 필수적
- ✓ 시민세력의 경제적 기초 완성은;
 - ➡ 실질을 숭상하고 힘써 일함(무실역행 務實力行)
 - → 스스로 자립함(자작자립 自作自立)
- ✓ 개인의 자율성과 자립성에 토대를 둔 중소 상공업 진흥론이고, 자유주의적 근대국가 건설론임
- ✓ 수양동우회의 경제론은 주요한을 통해 해방 이후 민주당의 경제론으로 계승되었음



- ✓ 그 해결방법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, 실수요자제의 폐지, 현실적인 환율 채택
 - ➡ 국영기업체는 관권 경제가 살 수 있는 숙주로, 민영화되어야 함
 - ➡ 급조된 민족자본은 온실의 꽃과 같아 약하고 금방 소멸
 - ➡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, 실수요자제도 폐지되어야만 함 외환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환율 정비되어야만 함
- ✓ 이 세 가지는 한국 경제가 자유경쟁의 경제 원칙에 따라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인식함



- ✓ 김영선은 방임주의에 가까운 자유경제론자였던 주요한과는 조금 다른 입장에 서 있음
- ☑ 그는 자유방임주의가;
 - ➡ 필연적으로 우승열패 및 약육강식 초래
 - ➡ 빈부격차 및 경제력에 의한 지배 발생
 - ➡ 경제적 평등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란 점에서 반대 입장 개진
- ✓ 경제적 민주주의는 국가 또는 법률에 의해 그 한계를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



- ✓ 그의 경제적 민주주의는;
- 1
 개인기업의 활동 보장
 2
 경제적 평등 달성
 3
 생산의 공정한 분배
- ✓ 국가의 계획 아래;
 - ➡ 자원, 자재, 자금의 중점적 사용
 - → 석탄, 전력, 비료, 철강 등의 기초 물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획적인운영을 하는 시스템 구상



- ☑ 그는 민주당에 합류하면서 자유경제론 수용
- ☑ 자유경제론 수용 이유는,
 - 1 부정부패를 양산하는 이승만 정권의 관권 경제보다는 오히려 자유방임주의가 낫다고 생각
 - 2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자신이 자각과 의식, 실력을 가져야 하고
 - 3 한국 존립의 핵심체인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권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적이고 자립적인 경제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판단



- ✓ 자유경제론을 수용했지만, 김영선이 생각하는 자유경제론은 주요한이 생각하는 자유경제론과는 차별적임
 - ➡ 사유(私有) 및 사영(私營) 기본
 - ➡ 국가에 의한 계획적이고, 과학적이며, 확고부동한 정책 추진
 - → 시행 수단 및 방법에 있어 국가의 통제와 관권이 아닌, 국민에 대한 교육, 계몽, 선전, 유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



- ✓ 1950년대 후반 김영선은 이러한 입장에서 민주당의 경제정책론 체계화
- ☑ 그 하나의 원칙이 관권보다 민권의 우위를 보장하는 자유경제;
 - ➡ 정부 내부에서의 확고부동하고 과학적인 계획 수립
 - → 그 실현에 있어 국민의 유도와 협조를 촉구하는 계획성 있는 자유경제



- ☑ 또 다른 하나의 원칙;
 - ➡ 자유경제가 갖는 우승열패
 - ➡ 약육강식에 의한 부익부 빈익빈의 위험을 교정하기 위해 사회 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분배
- ☑ 공정한 분배 실현방법;
 - ➡ 특권을 양산하는 관권경제 타파
 - ➡ 부정부패 청산



- ☑ 김영선이 생각했던 초기의 경제 구상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자유경제론의 색채가 강해졌음
- ✓ 기본적인 경제발전의 방향은 국가의 계획 속에 민(民)이 자율성을 발휘하면서 관민이 협조하는 경제 체제
- ✓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대공황 시기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를 통한 경제부흥정책 높이 평가
- ☑ 한국경제의 모델을 미국의 뉴딜정책에서 찾았음

주요한은 방임주의에 가까운 자유경제와 반통제정책을 표방 김영선은 국가의 일정한 계획과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

- 장면 정권의 경제정책은 미국과 협의하면서 한편으로는 두 핵심 이데올로 그가 가진 입론을 조율하는 가운데 마련됨
- 친미적인 이승만 정권기 실무 관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가운데 마련됨
-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조 기조와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중산층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
- 농촌의 과잉인구와 도서의 실업인구를 바탕으로 자본을 형성하고, 국가의 일정한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방향



학습정리

- 제2공화국의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제1공화국의 그것과 는 차별적이다.